

신라 중대의 정불국토(淨佛國土) 인식과 의미

An Understanding of the "Purify the Buddha-land (淨佛國土)" of the Middle Silla Period and its Significance

저자 (Authors)	박광연 Gwang Yeon Park
출처 (Source)	불교학보 68 , 2014.7, 113-133 (21 pages) BUL GYO HAK BO 68 , 2014.7, 113-133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694
APA Style	박광연 (2014). 신라 중대의 정불국토(淨佛國土) 인식과 의미. 불교학보, 68, 113-13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6 14: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중대의 정불국토(淨佛國土) 인식과 의미*

박광연**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정불국토 인식의 역사적 의미 |
| II. 정불국토의 개념과 신라 불교 | V. 맺음말 |
| III. 신라 유식 승려의 정불국토 논의 | |

〈한글요약〉

이 글은 신라 중대 승려들의 논서에서 ‘정불국토(淨佛國土)’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신라 불국토사상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본 것이다. 유식학적 정토관을 지닌 법위(法位), 의적(義寂), 현일(玄一), 경흥(憬興)의 『무량수경』 및 『미륵경』 주석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법위는 여래는 무분별지(無分別智)·후득지(後得智)의 무루종자(無漏種子)를 정토의 인(因)으로 삼고, 보살은 문혜(聞慧)·사혜(思慧)·수혜(修慧)를 일으켜야 정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현일은 법장이 5겁 동안 수행하여 초지(初地)에 올라 마음이 깨끗해지면 불토(佛土)도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하였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등해진다는 것은 바로 분별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한다. 경흥은 선정(定)을 근본으로 삼고 지혜(慧)가 선정을 이끄는 심관(心觀)이 정토의 업이라고 하여, 이를 통한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61-A00008)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청정국토의 성취를 강조하였다. 수행을 통해 국토를 청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국 통일을 이룩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던 시기에 법위, 현일, 경흥 등의 신라 승려들은 모두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불국토, 정토를 이루는 길임을 말하였다.

신라의 불국토 인식은 중고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통일 이후 불교 교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하면서 더 강화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부처와 인연이 있는 나라라는 의미에서의 불국토가 아니라 수행에 의해 청정해진 불국토를 꿈꾸었을 것이다. 현재의 신라 땅에 아미타불 및 여러 불보살(佛菩薩)이 상주한다는 이야기나 현신성불(現身成佛)의 사례들, 불국토의 구현이라 평가받는 경주 남산의 모습은 중대초정 불국토(淨佛國土)를 강조하던 여러 승려들의 가르침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주제어

정불국토, 불국토, 정토, 신라 불교, 유식학(唯識學)적 정토관, 법위(法位), 현일(玄一), 경흥(憬興)

I. 머리말

불국토(佛國土)는 신라 불교의 성격을 설명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신라인들은 신라 땅이 부처가 계신 곳, 또는 부처와 인연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라불국토설(新羅佛國土說)’은 많은 연구를 통해 주장되었고, ‘불국토사상’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신라불국토설에 대한 연구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삼국유사』에 나오는 불국토 관련 기록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¹⁾ 이후 관련 기록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주목받은 기록은 선덕여왕대 자장(慈藏)의 행적이다.²⁾ 자장은 신라 땅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신라를 불국토로 간주하였고,³⁾ 황룡사를 중심으로 불국토 인식을 보급시켰다고 한다.⁴⁾ 개별 연구들에 힘입어 신라 ‘불국토’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⁵⁾ 그밖에 현존하는 경주 불국사⁶⁾와 남산⁷⁾의 사상적 배경으로 불국토 인식을 거론하기도 하였고, 최치원의 글에서 불국토 인식을 찾아내기도 하였다.⁸⁾ 신라의 불국토 사상과 일본의 본지수적(本地垂迹) 사상을 비교하는 연구도

- 1) 金煥泰, 『신라불교사상』, 『한국불교사상사』 (승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사업회, 1975), pp.89-132 ; 『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87) 재수록 ; 정진호, 『신라의 불국토 사상에 관한 연구-『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이에 앞서 국문학에서 향가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현실불국토화사상’을 먼저 언급하였다. 정주동, 『한국불교문학연구-특히 향가의 불교문학적 성격』, 『경북대논문집』 14 (경북대, 1970), pp.1-36.
- 2) 자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安啓賢, 『삼국유사와 불교종파』,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0), pp.121-131 ; 辛鍾遠, 『신라 중고시대의 국가와 고승』, 『신라초기불교사연구』 (서울 : 민족사, 1992) ; 金相鉉, 『삼국유사 자장 기록의 검토』, 『전운덕충무원장화갑기념불교학논총』 (논총간행위원회, 1999), pp.749-778.
- 3) 金英美, 『자장의 불국토사상』, 『한국사시민강좌』 10 (일조각, 1992), p.2;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 76 (한국사연구회, 1992)
- 4)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과 황룡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2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1), p.77.
- 5)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의』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2000년 이전 신라 불국토사상에 대한 연구사는 이 논문 참조.
- 6) 신현숙, 『불국사의 가람배치와 불국토관』, 『불교사상』 28 (불교사상사, 1986), pp.196-209 ; 김상한, 『경주 불국사의 입지특성』, 『금구논총』 11 (경북과학대학, 2005), pp.183-203 ; 최완수, 『불국사와 석굴암』, 『석림』 40 (동국대 석림회, 2006), pp.384-403.
- 7) 최민희, 『신라 불국토사상의 정화(꽃)인 경주남산에 관한 고찰』, 『경주문화논총』 10 (경주문화연구원 향토문화연구소, 2007), pp.135-161.

진행되었고,⁹⁾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벽화를 모아 ‘불국토’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기도 하였다.¹⁰⁾

그동안의 ‘신라불국토설’ 연구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첫째는 왜 신라 불국토설은 신라 중고기(법흥왕~진덕여왕)와 하대(선덕왕~경순왕)에 한정해서 말해지는가 하는 점이다. 불국토사상의 수용과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신동하의 박사논문을 보면, 자장에 의해 황룡사 구층탑, 장육상 등이 조성되면서 불국토설이 제기되었고, 중대(무열왕~혜공왕)말 하대 초에 중고기 불교를 현창하면서 칠처가람설(七處伽藍說)이 만들어지고¹¹⁾ 신라 하대에 가서 낙산(落山), 오대산(五臺山), 천관산(天冠山) 등의 진신상주신앙(眞身常住信仰)이 유행하였다고 한다.¹²⁾ 반면 불국사 가람구조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신라 중대의 불국토 인식에 대해서는 신라 불국토설의 맥락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¹³⁾

- 8) 崔英成, 「최치원과 불교사상-불교와 관련한 종합적 고찰」, 『동양고전연구』 5 (동양고전학회, 1995), pp.129-169 ; 이슬행, 「고운 최치원의 동인의식에 관한 연구」 (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6)
- 9) 李箕永, 「7·8세기 신라 및 일본의 불국토사상 -산악승배의 사방불」, 『종교사연구』 2 (한국종교사학회, 1973), pp.80-92 ; 『한국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출판부, 1983) 재수록 ; 노성환, 「신라와 나라(奈良)의 불국토왕생사상의 비교연구-유사와 금석을 중심으로」, 『동방』 1 (한국외국어대 동양어학회, 1981), pp.29-138 ;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과 일본 본지수적사상의 비교연구-석종의식과 석가수적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4 (동덕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08), pp.5-23 ; 정천구,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과 불국토사상의 비교-『불조통기』·『삼국유사』·『원형석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p.59-84.
- 10) 국립대구박물관 편, 『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 -사찰벽화전』 (통천문화사, 2006)
- 11) 『阿道基羅』에 나오는 칠처가람 이야기의 경우, 아도가 계림에 온 때가 263년(미추왕 2)이라고 되어 있지만, 天王寺가 건립된 것이 679년(문무왕 19)이므로 칠처가람설의 최종적 형태는 빨라도 문무왕대 이후, 아마도 중대 말 하대 초 무렵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신동하, 앞의 논문 (2001), p.71.
- 12) 신동하,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0), pp.181-182.
- 13) 지금까지 신라 중대의 불국토 인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영미는 「甘山寺阿彌陀佛像銘」, 「甘山寺彌勒菩薩像銘」을 통해 성덕왕 때 신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 현실긍정적 면모와 불국토사상이 있었음을 밝혔고[김영미, 「성덕왕대 전제왕권에 대한 일고찰-감산사 미륵상·아미타상명문과 관련하여」, 『梨大史苑』 22·23 (이대사학회, 1988), pp.390-392], 중대의 阿彌陀信仰에 현실긍정적 성격이 강하여 현재의 신라 땅에 아미타불과 제불보살이 상주한다거나 신라 땅에서 아미타불이 성불했다는 사상이 있었다고 하였다[김영미, 『新羅佛敎思想史研究』 (民族社, 1994)]. 정병삼은 華嚴思想을 정립한 의상도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완전하게 하는 데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회 정화에 매진하여 얻는 즐거움이 바로 極樂淨土라 여기고 이러한 생각을 浮石寺에 담았다고 하였다[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둘째는 『삼국유사』를 제외하고는 불국토 신라를 논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불국토 신라를 묘사하는 최고의 자료가 『삼국유사』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삼국유사』의 불국토 관련 기사들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앞서 철처가람설이 중대 말 하대 초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의 불국토설은 고려 후기 일연의 의도적인 서술이라는 해석도 있다. 즉 일연이 당시 몽골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불국토를 강조했다라는 것이다.¹⁴⁾ 『삼국유사』에는 고려시대 자료 및 일연이 직접 들은 설화, 전설, 민담 등 구전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대 문화에 대한 고려시대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¹⁵⁾ 그렇다고 『삼국유사』의 기록이 오로지 고려시대의 인식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의 불국토 관련 기사에서 어디까지가 신라 당대의 이야기이고, 어느 부분이 변형된 것인지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신라불국토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는 그 방법과 대상을 달리하여 신라 중대 승려들의 논서에서 불국토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논서는 유식학적 정토관을 지닌 법위(法位), 의적(義寂), 현일(玄一), 경흥(景興)의 『무량수경』 및 『미륵경』 주석서들이다. 이를 통해 신라 불국토 인식의 전개 과정과 성격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정불국토의 개념과 신라 불교

불국토에 대한 신라 승려들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전개과정에서 ‘불국토’의 개념이 언제 형성되었고,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들을 빌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불국토(buddha-kṣetra)는 부처의 나라, 부처가 계시는 나라, 부처가 인도하는 나라, 불법(佛法)이 행해지고 있는 나라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테라바다(Theravāda) 불

연구』(서울대출판부, 1998)].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되었음에도 신라불국토설하면 중고기의 정치적 목적만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계승하여 신라 중대의 정불국토 논의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4) 최병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한국고대불교사 인식」,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p.188.

15) 남동신, 「『三國遺事』의 史書로서의 特性」, 『불교학연구』 16 (불교학연구회, 2007), p.62.

교에서는 불국토가 설해지지 않은 반면, 대승경전에는 다양한 이름의 불국토가 등장한다. 『아축불국경』의 아비라제(阿比羅提), 『아미타경』의 서방 극락(極樂), 『대반열반경』의 무승세계(無勝世界), 『약사여래본원경』의 동방 정유리세계(淨琉璃世界), 『문수사리불토장엄경』의 남방 리진구심(離塵垢心) 등이 있다.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정불국토(淨佛國土)’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보살을 석가에 한정하지 않고 재가·출가, 남녀, 귀천(貴賤)을 불문하고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여 수행하는 자는 모두 보살이라는 사상이 나타났고, 보살의 할 일 또는 서원(誓願)으로서 정불국토를 이야기하였다.

대품계(大品系) 경전에서는 보살의 할 일로서 정불국토가 강조되었다.¹⁶⁾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에서는 ‘보살법위(菩薩法位)에 들어가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여 중생을 성취하게 하고 일체중지를 획득할 것이다’¹⁷⁾라고 하여 ‘성취중생(成就衆生)’과 ‘정불국토(淨佛國土)’를 보살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로 규정하고 있다.¹⁸⁾ 삼업(三業)을 충실하게 하고, 의식주를 만족하게 하는 보시행 또는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정불국토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⁹⁾ 한편 정토계(淨土系) 경전에서는 보살이 서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수행을 완성하여 건립한 청정한 세계가 불국토(또는 정토)라고 하였다.²⁰⁾

이와 같이 불국토는 보살이 해야 할 일 또는 서원으로서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는 것(淨佛國土)’이 기본적인 의미였고, 깨끗하게 하는 행위의 결과로 ‘깨끗해진 불국토(淨佛國土)’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국토라고 하면 후자를 떠올리

16) 水谷幸正, 『淨佛國土思想について』, 『日本佛教學會年報』 37 (京都: 日本佛教學會, 1971), p.39.

17) 『摩訶般若波羅蜜經』 卷12, 歎淨品(『大正藏』 8, 307c12-13), “我當入菩薩法位中 我當淨佛國土 成就衆生 我當得一切種智”

18) 『菩薩從兜術天降神母胎說廣普經』 卷5, 善權品19(『大正藏』 12, 1042a27), “菩薩摩訶薩 教化衆生 淨佛國土”; 『大方等大集經』 卷26(『大正藏』 13, 183b5-11), “善男子 是故菩薩調衆生行 無量無邊不可思議 若有菩薩能調衆生 是真菩薩所修之業 善男子 菩薩摩訶薩有四種業 一者淨佛國土菩薩業 二者淨身菩薩業 三者淨口菩薩業 四者求一切佛法菩薩業 復有四業 一者知心 二者知根 三者知病 四者能治”

19) 水谷幸正, 앞의 논문 (1971), pp.40-41. 『摩訶般若波羅蜜經』 卷26, 淨土品82, “菩薩摩訶薩皆遠離如是麤業相 自布施 亦教他人布施 須食與食 須衣與衣 乃至種種資生所須 盡給與之 亦教他人種種布施 持是福德與一切衆生共之 迴向淨佛國土故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亦如是 是菩薩摩訶薩或以三千大千國土滿中珍寶施與三尊 作是願言 『我以善根因緣故 令我國土皆以七寶成”

20) 平川彰 外編, 『講座 大乘佛教5-淨土思想』 (東京: 春秋社, 1985), pp.131-150.

게 된다. 이는 아미타신앙의 유행으로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極樂)이 불국토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²¹⁾ 동아시아에 유행한 아미타신앙은 자력 수행이나 공덕에 의한 것보다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음으로써 구제받는다든 타력 구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불국토, 정토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극락)을 떠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불교에는 내세(來世)의 정토와 달리 지금의 사바(娑婆)세계가 바로 정토라는 인식도 있다. 『유마경(維摩經)』에서는 “마음의 청정함을 따르면 불토가 깨끗해진다(隨其心淨卽佛土淨)”라고 하여, 중생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국토를 예토(穢土)로 만들지만 부처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국토를 정토로 만들고 무량한 장엄공덕이 있다고 하였다.²²⁾ 보살은 부처처럼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 수행을 하는데, 『유마경』에서는 수행에 대한 언급 없이 깨끗한 마음이 바로 정토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심정토설(心淨土說)이라고 한다.²³⁾ 물론 『유마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의 주체는 부처·보살이다. 그런데 불성(佛性)사상이 확산되면서, 깨끗한 마음의 주체가 중생으로 확대되어 깨끗한 마음을 지닌 중생이 있는 곳이 바로 정토라는 유심정토설(唯心淨土說)이 등장하게 되었다.

7세기 후반~8세기 초반에 불국토, 정토 관련 논의를 펼친 법위(法位), 의적(義寂), 현일(玄一), 경흥(憬興)과 같은 신라 승려들의 사상 저변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현장(玄奘)에 의해 소개된 신유식학(新唯識學)이었다. 유식학에서의 정토에 대한 논의는 『유마경』의 ‘심정토설’이나 ‘유심정토설’과는 조금 맥락이 다르다. 유식학은 자기 마음을 관찰하여 자기 존재의 허망성을 자각하고, 그 자각에 의해 전식득지(轉識得智)하여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는 유가행자(瑜伽行者)들의 이론이다. 정토사상의 유행을 외면할 수 없었던 무착(無着), 세친(世親) 같은 유식학자들은 정토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정리하게 되는데, 『섭대승론(攝大乘論)』과 『정토론(淨土論)』에 잘 나타나고 있다.

무착은 『섭대승론』에서 청정불토(淸淨佛土)를 18원만(圓滿)으로 설명하였고,²⁴⁾ 세

21) 瓜生津隆眞, 「淨佛國土と菩薩道」, 『日本佛教學會年報』 58 (1993), pp.5-7.

22) 『維摩詰所說經』 卷1, 佛國品(『大正藏』 14, 538b26-c5), “如是 寶積 菩薩隨其直心 則能發行 隨其發行 則得深心 隨其深心 則意調伏 隨意調伏 則如說行 隨如說行 則能迴向 隨其迴向 則有方便 隨其方便 則成就衆生 隨成就衆生 則佛土淨 隨佛土淨 則說法淨 隨說法淨 則智慧淨 隨智慧淨 則其心淨 隨其心淨 則一切功德淨 是故寶積 若菩薩欲得淨土 當淨其心 隨其心淨則佛土淨”

23) 釋惠敏, 「『心淨則佛土淨』之考察」, 『中華佛學學報』 10 (1997), pp.25-44 ; 眞田康道, 「『心淨きに隨いて佛土淨し』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39-1 (1990), pp.452-454 참조.

친은 『정토론』에서 3엄(嚴) 29종(種) 장엄(莊嚴)으로 설명하였다.²⁵⁾ 『섭대승론』에 대한 무성(無性)이나 세친의 주석에 의하면, 정토의 상(相)은 정식(淨識, vijñapiti)의 변현이고, 정토는 청정한 식전변(識轉變)의 세계로서 무분별지(無分別智), 후득지(後得智)에 의해 생겨난다고 하였다.²⁶⁾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는 본래무루법이(本來無漏法爾)의 종자를 삼무수겁(三無數劫)에 걸쳐 닦아서 증광시키는 것이 정토 변현의 생인(生因)이라고 하였다.²⁷⁾ 이처럼 유식학에서는 여러 부처의 법륜을 다문훈습(多聞薰習)함으로써 식(識)을 더러운 것[穢]에서 깨끗한 것[淨]으로 전변하여 이 땅에 있는 채로 정토에 있다고 말하게 되었다.²⁸⁾

유식학에서는 수행의 정도, 식전변의 정도에 따라 성취하는 불토가 다르다고 말한다. 『불지경론(佛地經論)』, 『성유식론(成唯識論)』에서 불신(佛身) 관념을 자성신(自性身), 자수용신(自受用身), 타수용신(他受用身), 변화신(變化身)의 사신설(四身說)로 전개하고 이에 불토도 사토(四土)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성신은 법성토(法性土), 자수용신은 자수용토(自受用土), 타수용신은 타수용토(他受用土), 변화신은 변화토(變化土)에 산다고 한다.²⁹⁾ 중국의 유식학적 정토 해석은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을 수용토로 보는가, 수용토와 변화토가 공존하는 곳으로 보는가, 변화토로 보는가에 따라 의견이 나뉜다. 또한 이는 초지(初地)의 달성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한다. 선도(善導), 회감(懷感), 현장(玄奘), 규기(窺基) 등이 조금씩 다른 견해를 펼치고 있다.³⁰⁾

신유식학의 영향을 받은 신라 승려들의 불국토 논의도 식전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들은 유식학적 불신관·불토관 논의에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쳤다. 이

24) 『攝大乘論本』 卷3(『大正藏』 31, 151a25-29), “如是現示清淨佛土 顯色圓滿 形色圓滿 分量圓滿 方所圓滿 因圓滿 果圓滿 主圓滿 輔翼圓滿 眷屬圓滿 住持圓滿 事業圓滿 攝益圓滿 無畏圓滿 住處圓滿 路圓滿 乘圓滿 門圓滿 依持圓滿”

25) 『無量壽經優波提舍』 卷1(『大正藏』 26, 231b8-232a19)

26) 武內紹晃, 『唯識學と淨土教』, 『山岐教授定年記念-唯識思想の研究』(龍谷大學教學會編, 1987), pp.239-243.

27) 藤能成, 『정토의 成辨因과 莊嚴』, 『원효의 정토사상 연구』(민족사, 2001), p.253. 『兩卷無量壽經宗要』 卷1(『大正藏』 37, 128a25-27), “或有說者 本來無漏法爾種子 三無數劫修令增廣 爲此淨土變現生因 如瑜伽論說”

28) 上田晃圓, 『唯識의 觀法にみる此土淨土』, 『宗教研究』 55-3 (1982), p.206.

29) 『成唯識論』 卷10(『大正藏』 31, 58b26-c20)

30) 村上眞瑞, 『釋淨土群疑論』における阿彌陀佛の佛身佛土, 『印度學佛教學研究』 34-1 (1985), pp.226-227 ; 齊藤舜健, 『傳慈恩大師撰阿彌陀經疏の佛身佛土論』, 『印度學佛教學研究』 43-2 (1995), pp.218-221 ; 林香奈, 『基の彌陀佛身觀』, 『印度學佛教學研究』 54-1 (2005), pp.60-63 등 참조.

에 신라 승려들의 ‘정불국토’ 논의를 정리하고, 그 의의를 신라 불국토사상의 연장선 상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³¹⁾

Ⅲ. 신라 유식 승려의 정불국토 논의

7세기 중엽부터 신라 사회에서 불교 교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정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졌다.³²⁾ 일찍이 자장(慈藏)이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를 저술하였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³³⁾ 현존하는 정토 관련 논서들만 소개하면, 원효(元曉, 617-686)의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와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 법위(法位)의 『무량수경의소(無量壽經義疏)』,³⁴⁾ 현일(玄一)의 『무량수경기(無量壽經記)』 상권,³⁵⁾ 또 의적(義寂)의 『무량수경술의기(無量壽經述義記)』,³⁶⁾ 경흥(憬興)의 『무량수경연의술문찬(無量壽經連義述文贊)』 3권이 있다.³⁷⁾ 또 미륵 정토를 논한 경흥의 『삼미륵경소(三彌勒經疏)』도 있다. 이들 논서들은 유식학의 술어로 정토를 설명하고 있다. 현장의 귀국(645) 후 당(唐)에서는 점차 신유식학 교리가 보급되면서 정토를

- 31)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이 수용토인가 변화토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주제와 벗어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 32) 신라 정토교학에 대해서는 채인환, 『신라시대의 정토교학』, 『한국정토사상연구』 (동국대 출판부, 1985) ; 안계현, 『新羅淨土思想史研究』 (玄音社, 1987) 등의 연구가 있다.
- 33) 일본 『東域傳燈目錄』의 기록이다. 『東域傳燈目錄』 卷1(『大正藏』 55, 1151a9-11), “阿彌陀經疏一卷(智顛) 同經疏一卷(慈藏師)”
- 34) 원본은 없고 일본 학자 에타니 류카이(惠谷隆戒)가 일본 정토종 문헌에 인용된 구절을 정리한 복원본이다. 惠谷隆戒, 『新羅法位撰無量壽經義疏の復元について』, 『淨土教の新研究』 (山喜房佛書林, 1976), pp.393-406.
- 35) 최근 일본 書陵部藏 『無量壽經記』의 사본이 소개되었는데, 나라시대 사본을 透寫한 판본으로 보고 있다. 『日本古寫經善本叢刊 第5集-書陵部藏 玄一撰 無量壽經記 / 身延文庫藏 新羅義寂撰 無量壽經述記 卷第一(斷簡)』 (國際佛敎學大學院大學 日本古寫經研究所, 2013), pp.2-9.
- 36) 『無量壽經義疏』와 마찬가지로 에타니 류카이의 복원본이다. 惠谷隆戒, 『義寂の無量壽經述義記について』, 앞의 책 (1976), pp.409-453. 일본 미노부(身延)문고 소장의 『無量壽經述記』 1권이 의적이 저술로 밝혀졌고, 그 사본이 공개되었다. 『日本古寫經善本叢刊 第5集 身延文庫藏 新羅義寂撰 無量壽經述記 卷第一(斷簡)』 (國際佛敎學大學院大學 日本古寫經研究所, 2013)
- 37) 온전한 형태로 전승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다. 渡邊顯正, 『新羅憬興師述文贊の研究』 (永田文昌堂, 1978)와 김양순, 『憬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논문, 2009)가 대표적이다.

타수용토나 변화토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³⁸⁾ 신라의 논사들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신라 정도 문헌 사이의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선행 연구에 힘입어 그 순서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물연대로 보아 원효가 가장 앞서고, 범위가 원효와 같거나 조금 뒤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일의 문헌에 나오는 ‘의적사(義積師)’³⁹⁾가 의적(義寂)과 동일인이라는 견해를 따르면, 의적의 것이 현일의 것보다 먼저일 것이다. 경홍의 『무량수경연의술문찬』에 실린 화정 의산(華頂義山, 1648~1717)의 발문에서 ‘의적, 범위 등의 여러 명류들이 모두 썼기 때문에 경홍 대사도…’⁴⁰⁾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의적의 것이 경홍의 것보다도 앞일 가능성이 있다. 의적은 『무량수경』을 설명하면서 『보요경(普曜經)』을 주로 인용한 반면, 경홍은 같은 구절을 『보요경』의 이역본인 지바가라(地婆訶羅, 日照, Divākara) 역의 『방광대장엄경(方廣大莊嚴經)』으로 설명하는데,⁴¹⁾ 이 또한 경홍의 것이 의적의 것보다 뒤시기일 가능성을 말해준다. 경홍이 현일의 『무량수경기』를 인용하였다는 견해⁴²⁾를 따르면 현일의 것보다도 뒤이다. 정리해보면, 신라의 『무량수경』 주석서는 원효 - 범위 - 의적 - 현일 - 경홍의 순으로 저술되었다고 판단된다.⁴³⁾

이제부터 이들 정도 논서들에서 ‘정불국토’를 언급한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⁴⁴⁾ 원효는 수용토, 변화토와 같은 유식학 술어로 정토를 설명하긴 하지만 유식학적 정토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신라에서 처음으로 정토사상을 펼쳤으

38) 玄奘 이전 중국 불교에서 정토는 여러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淨影寺 慧遠은 事淨土, 相淨土, 眞淨土의 三土로 구분하고, 天台 智顓는 凡聖同居土, 方便有餘土, 實報無障礙土, 常寂光土의 四土로 구분하고, 智儼은 化淨土, 事淨土, 實報淨土, 法性淨土의 四土로 구분하였다. 柴田 泰, 『中國淨土敎の發展』, 平川彰 外編, 앞의 책 (1985), pp.233-251 참조.

39) 『無量壽經記』 卷1, “義積師云 往生論釋此以後經文”

40) 『無量壽經連義述文贊』 卷3(『大正藏』 37, 171a12-14), “以故淨影作焉 嘉祥作焉 義寂法位等諸名流皆作焉 而興大師窮工于茲 可謂殊勤矣”

41) 南宏信, 『新羅義寂撰『無量壽經述記』의撰述年代考』, 『日本古寫經善本叢刊 第5集 身延文庫藏新羅義寂撰 無量壽經述記 卷第一(斷簡)』 (2013) p.210.

42) 안계현, 『法位와 玄一의 彌陀淨土往生思想』, 앞의 책 (1987), p.276.

43) 현일과 경홍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현일의 경론 인용태도를 볼 때 경홍보다는 먼저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경홍의 『삼미륵경소』와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의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지만, 경홍은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을 저술하기에 앞서 『미륵경술찬』을 저술하였다. 박광연, 『彌勒上生經述贊』의 저자 및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p.261.

44) 의적의 글에서는 관련 구절을 찾지 못해 논의를 생략한다.

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그의 해석을 소개해본다. 원효는 예토(穢土)와 정국(淨國)이 본래 한 마음이라고 하여⁴⁵⁾ 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인간의 마음이 발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끊임없이 현상계의 공함을 생각하고 수행하여 자신의 본각(本覺)을 깨닫는다면, 수행에 의한 보불(報佛)이 될 것이고 그 경지가 정토라고 설하고 있다. 즉 자성의 본각을 깨달은 경계가 정토이므로 정토와 예토가 하나라는 것이다. 물론 본각을 깨닫는 수행을 요구하는 이 주장은 근기가 뛰어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원효는 근기가 낮은 일반 중생을 위해 서방세계로의 왕생도 강조하였다.⁴⁶⁾

본격적으로 유식학적 정토관을 펼친 이는 범위이다. 범위는 정토의 인(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치에 근거하면 항상 심성이 공함을 관하기 때문이다. 경문(『무량수경』)에서 ‘마음이 寂靜하여 모두 집착함이 없다’고 하였고, 또 『법화경』에서 ‘부처의 아들은 마음에 집착함이 없다’고 하였다. 이 묘한 지혜로 無上道를 구하기 때문이니, 이들은 시방 정토의 인에 공통된다.⁴⁷⁾

범위는 시방 정토에 공통된 인으로 ‘묘한 지혜(妙惠)’를 제시하고 있다. 범위는 정토인에 대해 두 층위로 설명하였다. 즉 “본래 무분별지(無分別智), 후득지(後得智)의 무루선법종자(無漏善法種子)로 삼무수집 동안 닦아 지금 넓어진 것이 정토이다”라고 하여 여래는 무분별지·후득지의 무루종자가 정토의 인이고, 보살은 문혜(聞惠)·사혜(思惠)·수혜(修惠)를 일으켜야 정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⁴⁸⁾

다음은 현일의 정토인(淨土因)에 대한 해석이다.

45) 『兩卷無量壽經宗要』 卷1(『大正藏』 37, 125c7-8), “以覺言之無此無彼 穢土淨國本來一心 生死涅槃終無二際”; 『阿彌陀經疏』 卷1(『大正藏』 37, 348a16-17), “以覺望之無流無寂 穢土淨國本來一心 生死涅槃終無二際”; 김영미, 『원효의 아미타신앙과 정토관』, 앞의 책 (1994), p.105에서 재인용.

46) 김영미, 앞의 책 (1994), pp.105-109.

47) 『無量壽經義疏』(『韓國佛教全書』 2, 14a10~14), “第二約理者 常觀心性空故 文云其心寂靜 悉無所着 又法華經云 又有佛子 心無所着 以此妙惠求無上道 此等通十方淨土因也”

48) 『無量壽經義疏』(『韓國佛教全書』 2, 13c19-21), “第四明因者 明佛淨土因 用本來無分別智後得無漏善法種子 三無數劫修 今增廣爲淨土”; 『韓國佛教全書』 2, 13c23-14a4), “第五遊路者 有二種 一菩薩遊路 謂廢(發?)聞思修惠 得入淨土 故名遊路 二如來遊路 謂以無分別及後得智 由此二智 通生淨土 故名遊路”

[경] 佛告阿難法藏比丘說此頌已~懃苦之本에 대해서이다.

[기] 서술한다. 여기부터는 여섯 번째로 請願을 서술하겠다. ‘내 마땅히 수행하여 무량한 묘토에 이르겠다’는 것은 아직 설법을 듣지 못했을 때의 단계이니 初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 마땅히 수행하여 섭취하겠다’는 것은 설법을 듣고나서 5겁 동안 사유하여 초지 이상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 이미 섭취하였다’는 것은 수행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면 저절로 불토도 깨끗해지기 때문에 ‘攝取等’이라 하였다.⁴⁹⁾

[경] 佛語阿難時世繞王佛~汝自當知에 대해서이다.

[기] 서술한다. 일곱 번째 설법에 대해서이다. 여기에는 세 부분이 있으니 첫째 반문하여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 둘째 깊이 탐구하여 설법을 청하는 것이고, 셋째 여래가 바로 말씀하는 부분이다. 여기는 처음에 해당한다. 법장은 오래지 않아 初地에 들어간다. 초지에 들어가고 나면 마음이 평등해지기 때문에 장엄된 불토도 저절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른 『경』에서 말하기를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허구 등을 본다고 하였는데, 만약 분별(심)이 없다면 곧 정토를 볼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가 법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머지않아 너 스스로 알 것이라고 하였다.⁵⁰⁾

현일은 법장이 5겁 동안 수행하여 초지(初地)에 올라 마음이 깨끗해지면 불토(佛土)도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하였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등해진다는 것은 바로 분별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한다. 현일은 신라 승려들 가운데서도 특히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다. 그는 부처 수명의 길고 짧음에 대해 “또 겁의 길고 짧음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 따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석가는 법화회(法華會)에서 또한 50 겁에 이르렀으니 어찌 정토의 부처가 아니겠는가. 오직 마음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성(自性)이 없고, 인연법이므로 있는 바가 없다. 인연에 따라 있지 않음도 없다. 어찌 길고 짧음, 멀고 가까움의 구별을 정할 수 있겠는가?”⁵¹⁾라고 하여

49) 『無量壽經記』 卷上(『韓國佛教全書』 2, 239b5-12), “佛告阿難法藏比丘說此頌已(至)懃苦之本 述曰 自下第六敘請 言我當修行至無量妙土者 未聞說法時位 地前位故 言我當修行攝取等 聞法已五劫思惟登地上故 言我已攝取等也 其修行心淨自然佛土淨故 言攝取等也”

50) 『無量壽經記』 卷上(『韓國佛教全書』 2, 239b13-20), “佛語阿難時世繞王佛(至)汝自當知 述曰 第七說法 於中有三 初反問令思 二推深請說 二如來正說 此即初也 法藏不久 入於初地 若已入初地 心平等故 莊嚴佛土 自然現見 如餘經說 有分別心故 見垢等 若無分別者 即見淨土 是故佛告法藏 不久汝自當知”

51) 『無量壽經記』 卷上(『韓國佛教全書』 2, 240b7-13), “又說劫長短唯隨人心 釋迦法華會中 亦有

사람의 마음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오직 마음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무량수경기』에 관통하는 현일의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경홍에게서도 ‘정불국토’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미륵소문경』에서는 “보살은 네 가지 일 때문에 正覺을 얻지 않는다. [네 가지 일이란] 첫째 국토를 깨끗하게 하는 일, 둘째 국토를 지키는 일, 셋째 일체 중생을 깨끗하게 하는 일, 넷째 일체 중생을 지키는 일이다. 미륵은 부처가 되기를 구할 때 이 네 가지 일 때문에 부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⁵²⁾

경홍은 『삼미륵경소』에서 미륵보살이 빨리 성불하지 않은 까닭은 네 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정국토(淨國土), 호국토(護國土), 정일체(淨一切), 호일체(護一切)라고 하여 미륵보살의 역할로서 ‘정국토’를 내세우고 있다. 『무량수경연의술문찬』에서는 지행(止行)과 관행(觀行)이 정토로 가는 길이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데[廣說勝行],⁵³⁾ ‘바로 뛰어난 행을 닦음(正修勝行)’ - ‘서원에 의지하여 수행함(依願修行)’ 부분에 정토의 인에 대한 경홍의 견해가 잘 드러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정토의 행은 비록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직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事를 緣하는 행이니, 稱名念佛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치에 의지한 행이니, 攀緣을 그치기 때문이다. 처음 것은 곧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락에 왕생하기 위한 개별적인 행이다. 뒤의 것은 곧 여러 부처의 국토에 모두 통하

至五十劫 彼豈淨土佛耶 唯是隨心造作 無別自性 以因緣法 無所有故 隨其因緣 無所不有 胡可以定有長短遠近之別”

52) 『三彌勒經疏』, “彌勒所問經云 菩薩以四事 不取正覺 一淨國土 二護國土 三淨一切 四護一切 彌勒求佛時 以此四事 故不取佛”

53) 해당 부분의 과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廣說勝行	正辨修行	法藏請說	乘前正請 申請說之意
		如來抑止	
		法藏重請	
		如來許說	總標許說 別申所說 都相發願
	申所修行	正修勝行	依願修行 逐難重解
		申所修行	
		申修勝行	

는 행이니, 이른바 마음은 고요하고 집착이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옳지 않다.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곧 24願經을 완성하여 바로 받들어 행했다”라고 한 것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미 극락토이므로 반드시 여러 토에 통하는 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곧 정토가 반드시 선정(定)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은 고요하고”라고 하였고, 지혜가 그 선정을 이끌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 없으며”라고 하였다. 이른바 심관(心觀)을 정토의 업이라 하니, 곧 수승한 출세간의 선근방편이기 때문이다.⁵⁴⁾

경홍은 선정[定]을 근본으로 삼고 지혜[慧]가 선정을 이끄는 심관(心觀)이 정토의 업이라고 하여, 이를 통한 청정국토의 성취를 강조하였다. 수행을 통해 국토를 청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⁵⁾

이상과 같이 삼국 통일을 이룩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던 시기에 법위, 현일, 경홍 등의 신라 유식 승려들은 모두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전식득지(轉識得智)를 이루는 것이 불국토, 정토를 이루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초지(初地)라는 경계는 범부가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하지만 신라인들이 이들의 말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IV. 정불국토 인식의 역사적 의미

지금까지 신라 불국토에 대한 논의는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불국토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칠처가람설(七處伽藍說)과 같은 유연국토설(有緣國土說)이다. 전통신앙에서 중요한 장소들이

54) 『無量壽經連義述文贊』(『韓國佛教全書』 권2) “經曰 其心寂靜 至清淨之行者 / 述云此第二依願修行也 (중략) 有說淨土之行 雖復衆多 唯有二類 一緣事行 稱名念佛故 二依理行 息攀緣故 初卽稱彌陀名故是極樂別行 後卽通諸佛土行 所謂心寂無著是也 此亦不然 違卽選心所欲願便結得是二十四願經卽奉行故 心所欲願既極樂土 必不可言是諸土通行故 今卽欲現淨土必定爲本故 其心寂靜慧導其定故云無所著 所謂心觀名淨土之業 卽勝出世間善根方便故”

55) 『無量壽經連義述文贊』 卷中(『韓國佛教全書』 권2), “地上菩薩 念念常修 利諸衆生 淨佛國土 不應五劫 專修受淨土行故”

가섭불 등의 전불(前佛) 시대에 이미 절터였다는 설로, 오랜 옛날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은 땅이었다고 보여줌으로써 불교 수용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한다. 둘째는 자장(慈藏)의 불국토사상이다. 자장은 황룡사 장육상, 가섭불연좌석에 얽힌 이야기 등을 통해 백성들에게 위안과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선덕여왕시기 통치의 안정을 도모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불국토설은 중고기의 신라 사회에서 불교 수용의 정당성, 이를 통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셋째는 자장과 오대산, 의상과 낙산, 사복과 연화장세계 등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 땅에 불보살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보살주처신앙이 있었다.

신라 중고기의 불국토 논의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였다. 왕권 강화 및 체제 안정을 위해 ‘신라는 과거불과 오랜 인연이 있는 나라이다’ 또는 ‘국왕이 석가족이므로 부처의 가호를 받아 국토를 평안히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신라가 불국토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삼국통일 이후 불교 교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불국토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신라 사회에서 불교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은 중고시기에 비하여 축소되었지만, 사회 통합 및 신앙 차원에서의 불사佛事 활동은 확대되었다. 성덕왕(재위 702-737) 때가 되면 신라는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서 국왕을 전륜성왕(轉輪聖王)에 비견하기도 하고,⁵⁶⁾ 신라 땅에 부처가 상주한다는 불국토 인식이 확산되기도 하였다.⁵⁷⁾

성덕왕 때의 불국토 인식에는 범위, 현일, 경흥 등과 같은 승려들의 정불국토 논의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신라 유식 승려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불교 이해를 사회에 보급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신문왕 때 국로(國老)가 되었다는 경흥의 경우를 보면, 그는 활발한 저술 활동과 더불어 강의에도 주력하였던 것 같다. 신라 사회의 지식인에게 고승들의 저술이나 강의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56) 706년(성덕왕 5) 황복사 탑에 부처의 사리, 아미타불상,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을 안치하면서 사리함에 새긴 명문에 성덕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隆基大王은 수명이 江山과 같이 오래고 지위는 關川과 같이 크며 천명의 자손이 구축하고 칠보의 상서로움이 나타나기를 빈다. 隆基大王 壽共山河同久 位與軋川等大 千子具足 七寶呈祥”[정병삼역, 『皇福寺金銅舍利函記』, 『역주한국고대금석문Ⅲ』(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여기서 ‘千子具足 七寶呈祥’은 경전에서 전륜성왕을 형용하는 상투어로 나온다. 김영미, 앞의 책 (1994), p.151; 김상현, 『7세기 후반 신라불교의 정법치국론-원효와 경흥의 국왕론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7), p.20.

57) 김영미, 앞의 논문 (1988), p.392.

이는 김지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성은 상사봉어(尙舍奉御), 집사시랑(執事侍郎) 등의 관직을 지내다 67세에 그만두고 도읍의 변두리 한적한 곳으로 내려와 그곳에 감산사(甘山寺)를 짓고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을 조성하였다(719년).⁵⁸⁾ 이 상들의 광배를 통해 그의 생애와 사상 경향을 알 수 있는데, 김지성은 노장(老莊)과 유식학에 깊이 매료되어 노자의 『도덕경』 및 『장자』 『소요』편을 매일 읽고 십칠지(十七地)의 법문(法門)을 깊이 연마하였다고 한다.⁵⁹⁾ 십칠지의 법문이란 바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가리킨다. 김지성이 『유가사지론』을 깊이 연구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일찍이 유식학에 조예가 깊은 승려의 설법을 들은 적이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유가사지론』은 불교의 술어나 수행에 익숙하지 않으면 혼자서 읽어내기 어려운 논서이기 때문이다.

김지성이나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노힐부득, 달달박박, 광덕, 엄장, 포산(包山)의 성인 같은 수행자들을 통해 신라 사회에 유식학 및 수행에 대한 이해가 퍼져나갔음을 막연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지식인들이 직접 수행을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수행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아로새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불국토 인식은 중고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통일 이후 불교 교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하면서 더 강화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부처와 인연이 있는 나라라는 의미에서의 불국토가 아니라 수행에 의해 청정해진 불국토[정불국토(淨佛國土)]를 꿈꾸었을 것이다. 나아가 『화엄경』에서의 연화장(蓮華藏)⁶⁰⁾이나 『법화경』의 영산정토(靈山淨土) 같은 세계를 신라 사회에 구현하려 하였을 것이다.⁶¹⁾

58) 김복순, 『8·9세기 신라 瑜伽系 佛教』, 『한국고대사연구』 6 (한국고대사학회, 1993), pp.39~40에서 김지성이 감산사에 미륵보살상을 조영하고 『유가사지론』을 애독한 것으로 보아 유식과 관련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구문회, 『감산사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 조상기를 통해 본 7~8세기 신라 귀족의 삶-김지성(金志誠)의 일생과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생활문물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pp.5-28.

59) 『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造像記』, “開元七年 己未 二月十五日 重阿浪 金志誠 奉爲亡考仁章 一吉浪 亡妣觀肖里 敬造甘山寺一所 石阿彌陀像一軀 石彌勒像一軀 (중략) 性諧山水 慕莊老之逍遙 志重眞宗 希無著之玄寂 年六十有七 致王事於清朝 遂歸田於閒野 披闢五千言之道德 弃名位而入玄 窮研十七地之法門 壞色空而俱滅”[성균관대학교 박물관, 『新羅 金石文 拓本展』 (2008), p.62]

60) 義寂, 『菩薩戒本疏』 卷上(『韓國佛教全書』 2, 259b6-9), “華嚴所說蓮華藏世界者 卽是所統之世界也 上有十二佛國土七世界性 九方亦爾 是盧舍那常轉法輪處” 및 『삼국유사』 권4, 『義解』, 蛇福不言에서 연화장세계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61) 김영태는 영취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화 정토의 신라화, 『법화경』의 관음보살이 侍婢나 사문의 처 등으로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신라 위주의 법화정토관’이라 하였다[김영태, 『법화신앙

현재의 신라 땅에 아미타불 및 여러 보살이 상주한다는 이야기나 현신성불(現身成佛)의 사례들, 불국토의 구현이라 평가받는 경주 남산의 모습은 중대초 정불국토(淨佛國土)를 강조하던 여러 승려들의 가르침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신라인들은 통일 이후 전쟁의 참상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부처님 나라를 만들 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중대 승려들의 논서에서 ‘정불국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신라 불국토사상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보았다. 유식학적 정토관을 지닌 법위(法位), 현일(玄一), 경흥(憬興)의 『무량수경』 및 『미륵경』 주석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법위는 여래는 무분별지·후득지의 무루종자를 정토의 인으로 삼고, 보살은 문혜(聞惠)·사혜(思惠)·수혜(修惠)를 일으켜야 정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현일은 법장이 5겁 동안 수행하여 초지(初地)에 올라 마음이 깨끗해지면 불토(佛土)도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하였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등해진다는 것은 바로 분별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한다. 경흥은 선정(定)을 근본으로 삼고 지혜(慧)가 선정을 이끄는 심관(心觀)이 정토의 업이라고 하여, 이를 통한 청정국토의 성취를 강조하였다. 수행을 통해 국토를 청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국 통일을 이룩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던 시기에 법위, 현일, 경흥 등의 신라 승려들은 모두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불국토, 정토를 이루는 길임을 말하였다.

신라의 불국토 인식은 중고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통일 이후 불교 교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하면서 더 강화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부처와 인연이 있는 나라라는 의미에서의 불국토가 아니라 수행에 의해 청정해진 불국토[정불국토(淨佛國土)]를 꿈꾸었을 것이다. 현재의 신라 땅에 아미타불 및 여러 보살이 상주한다는 이야기나 현신성불(現身成佛)의 사례들, 불국토의 구현이라 평가받는 경주 남산의 모습은 중대초 정불국토(淨佛國土)를 강조하던 여러 승려들의 가르침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는 또한 신라 하대에 강화되는 불국토 인식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의 전래와 그 전개』, 『한국불교학』 3 (1977), pp.39-40].

고대 한국인들은 인간의 현세에서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현실적 행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의 생활을 좌우하는 초월적 존재들과 접촉할 것을 요구하였다.⁶²⁾ 진평왕 이후 화랑을 미륵의 화신이라고 여기는 미륵하생신앙이 유행하면서 신라인들은 용화회상을 사후(死後)가 아닌 현세(現世)에서 맞이할 수 있는 이상세계라고 생각하였다.⁶³⁾ 통일 이후, 중대 하대를 지나면서 신라 사회에는 내세보다 현세를 강조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던 것 같다.

62) 나희라, 「고대 한국의 샤머니즘」, 『한국고대사논총』 9 (2000), pp.94-95.

63) 최연식,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내세의식」, 『강좌 한국사』 8 (2002), pp.260-261.

〈 참고문헌 〉

- 元曉 『阿彌陀經疏』
 元曉 『無量壽經宗要』
 法位 『無量壽經義疏』
 玄一 『無量壽經記』
 憬興 『無量壽經連義述文贊』
 憬興 『三彌勒經疏』
- 金煥泰, 『한국불교사상사』 (승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사업회, 1975)
 김영미, 『新羅佛敎思想史研究』 (民族社, 1995)
 안계현, 『新羅淨土思想史研究』 (玄音社, 1987)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8)
 惠谷隆戒, 『淨土敎の新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76)
 平川彰 外編, 『講座 大乘佛敎5-淨土思想』 (東京: 春秋社, 1985)
 『日本古寫經善本叢刊 第5集-書陵部藏 玄一撰 無量壽經記 / 身延文庫藏 新羅義寂撰 無量壽經述記 卷第一(斷簡)』 (國際佛敎學大學院大學 日本古寫經研究所, 2013)
- 김상현, 『7세기 후반 신라불교의 정법치국론-원효의 경홍의 국왕론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7)
 김양순, 『憬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박광연, 『신라 경홍의 법화경관과 정도관』, 『회당학보』 15 (회당학회, 2009)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의』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과 황룡사』,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2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1)
 武内紹晃, 『唯識學と淨土敎』, 『山岐教授定年記念-唯識思想の研究』 (京都: 龍谷大學敎學會編, 1987)
 爪生津隆眞, 『淨佛國土と菩薩道』, 『日本佛敎學會年報』 58 (京都: 日本佛敎學會, 1993)
 水谷幸正, 『淨佛國土思想について』, 『日本佛敎學會年報』 37 (京都: 日本佛敎學會, 1971)

〈Abstract〉

An Understanding of the ‘Purify the Buddha-land (淨佛國土)’ of the Middle Silla Period and its Significance

Park, Gwang-Yeon

This paper reviewed the middle Silla period monks’ understanding of ‘Purify the Buddha-land (淨佛國土)’ based on Buddhist texts of the period and interpreted its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Silla Pureland Buddhism. The targets of the review are the commentaries of the *Sukhāvātī-vyūha* (無量壽經) written by Beobwi (法位), Hyeon-il (玄一), and Gyeongheung (憬興) who emphasized the Pureland Buddhism based on Yogācāra Buddhism.

Beobwi (法位) insisted that the untainted seeds of the non-discriminating wisdom and subsequently attained wisdom are the cause of pure-land to tathāgata (如來). On the other hand, Bodhisattva can enter the pure-land after cultivating the three kind of wisdom i.e. the wisdom gained by listening to expositions of the Dharma (聞慧), the wisdom gained by contemplating the truth (思慧), and the wisdom gained by the cultivation of meditation (修慧). Hyeon-il explained that, if Dharmākara Bodhisattva arrives the first of the ten bodhisattva bhūmis (stage or ground) after practicing meditation for five eons, the Buddha-land will become automatically pure. This state of equal and pure mind points to the mind of non-discrimination. Gyeongheung emphasized the meditative concentration (禪定 dhyāna) as fundamental basis that achieve the pure land and he defined the contemplation of the mind which leads the meditative concentration is the karma of pure-land. He explained that only through this practice, we can purify our land.

All three Silla monks, Beobwi, Hyeon-il, and Gyeongheung insist that purifying the mind through practice is the only way to achieve Buddha-land when the new society was being mad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Silla’s

understanding of the Pure Buddha-land did not finished after the middle-ancient period (中古期) but continued, rather strengthened it depth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as the understanding of Buddhist studies progressed. To Silla people, Buddha-land was not understood in terms of the past Buddha or the causal relationship but Silla people dreamed the Buddha-land that is cleaned and purified through practices. The idea and stories of presence of Amitâbha Buddha and many buddhas and bodhisattvas along with Mt. Nam-san being considered as the realization of Buddha-land were deeply inspired by the teaching of many scholar monks who emphasized 'Purify the Buddha-land' from around the later 7th century to the first 8th century in Silla land.

• **Key Words**

Purify the Buddha-land, Silla Buddhism, the *Sukhāvati-vyūha*, Pureland Buddhism, Yogācāra Buddhism, Beobwi (法位), Hyeon-il (玄一), Gyeongheung (憬興)

논문접수일: 2014년 06월 9일, 심사완료일: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2014년 07월 23일.